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로마서 9~10장. 전세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권속으로 태어나고 또 이생에서 특별한 축복과 책임을 받도록 예임(선택)되었다. 이러한 축복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의 자발성에 달려 있다. (40~45분)

여러분이 특별한 상을 받을 사람 한 명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사용할 것이다. (1) 제비 뽑기, (2) 투표, (3) 가장 뛰어난 실적에 따른 선정.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서 3장 23절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예임이 되었는지를 찾아 적어본다. (답:)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아브라함이 무작위로, 투표로, 또는 그의 충실함 가운데 어떤 것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충실함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엘마서 13장 3~4절**을 읽는다.

요점 1. 전세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권속으로 태어나고 또 이 생에서 특별한 축복과 책임을 받도록 예임 되었다.

요점 2. 예임 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따라야만 한다.

요점 3. 이방인들(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복음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

위 요점들 가운데 두 가지는 이 부분의 가르침을 위한 제언에서 다루어졌다. 세 번째 요점은 로마서 11장 11~22절에 대한 가르침을 위한 제언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위 첫 번째 요점을 읽는다. **로마서 9장 1~5절**을 읽고 양자, 영광, 성약들, 약속이라고 공책에 적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4절에 따르면, 누구에게 이러한 축복이 약속되었는가?
- 그들이 왜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복음의 성약과 약속을 받도록 예임 되었다. **로마서 9~11장에 대한 소개에 나와 있는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와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말씀(다음 쪽)을 읽는다. 로마서 9장 9~14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6절 참조; 창세기 32:28 또한 참조)
- 야곱이 어떻게 전세의 충실함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의 예가 되었는가?
- 이것이 정당하다고 경전이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가르치는가?
- 바울은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관한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14절 참조)

해롤드 비 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후에 이스라엘이라 불리우게 된 야곱의 혈족으로 태어난 자들과 이스라엘의 자녀로 알려진 그의 후손은 이 지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우수한 혈족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보상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약속되고 예임되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전세의 영계에서 살았던 생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의심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 죽은 후에 인간의 지상에서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상의 생활에서 받은 것은, 곧 이곳에 오기 전 우리가 행한 공적에 따라 주어진 것임을 믿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해롤드 비 리, Conference Report, 1973년 10월, 7~8쪽; 성도의 빛, 1974년 6월호, 34쪽)

좌측에 있는 두 번째 요점을 읽는다. 로마서 9장 7절과 조셉 스미스 역에서 같은 구절을 읽은 뒤에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왜 그들이 맺은 성약에 충실하지 않았는가?
- 바울은 6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가?
- 이스라엘 권속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왜 그 사람의 해의 영광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가?

교리와 성약 64편 35~36절을 읽고 또 배반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찾아본다. **전세에서의 충실함, 예임된 약속, 또는 특정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여 주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또는 다른 이들에 대해 우월함을 느끼도록 특정한 축복을 허락하지는 않으셨다.**

많은 성구가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은 추가로 다음 몇 가지 성구를 공부하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21:34;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3:34~36; 요한복음 8:39; 니파이후서 30:1~2 참조**) 또한 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있는 “생각할 점” (339~341쪽)을 읽는 것을 고려한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로마서 10:1) 하기 위해 이 교리를 가르쳤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권속에 속해 있으며 또한 성약의 백성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행하리라고 기대하고 계시며 또한 여러분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 (교리와 성약 82:10 참조)** 여러분이 지닌 책임과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찾아보면서 **로마서 10장 1~3절과 9~18절**을 읽는다.

시간이 허락하면, 여러분은 “애통하는 이스라엘”(찬송가, 10장)을 부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찬송가의 가사에서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배울 수 있는가?
-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 로마서 9~10장에 있는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축복이 될 수 있는가?
-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결과로 여러분은 어떤 일을 전과 다르게 할 것인가?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소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지상에 오기 전에 그분과 함께 살았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우리 각자에게 그분처럼 되는 권세와 권능을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곧 영생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살았다. 상속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과 속성을 받았다. 우리는 그분의 영의 자녀이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속성의 일부를 받았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행복의 추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한 이해 [1993년], 70쪽)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아버지의 모든 영의 자녀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중요한 재능 또는 능력은 영성이란 재능이다. 이 재능을 얻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권속의 일원으로 지상에 오기 전에 택함을 받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모든 세대에 걸쳐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도록 예임되었다. 이 예임은 택함이다. ... 비록 모든 인류가 순종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좀 더 쉽다. 따라서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알며 세상에서 나는 여러 다른 음성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개념이다.” (신앙개조의 새로운 증인, 512~513쪽)

로마서 9~11장에서 바울은 택함 또는 예임의 교리를 가르쳤다. 바울의 편지를 읽은 이들은 이미 전세가 존재하였다는 교리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이 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바울은 예임의 교리가 결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권속으로 덧붙여지고 또 복음의 축복과 약속에 충분히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찾아보아야 할 중요한 복음 원리

- 전세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권속으로 태어나고 또 이 생에서 특별한 축복과 책임을 받도록 예임(선택)되었다.(로마서 9:1~5, 11, 23; 11:2, 5 참조; 또한 예레미야 1:5; 에베소서 1:3~5 참조)

- 이스라엘의 권속이 되는 것은 주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별 가치가 없다.(로마서 9:31~33; 10:1~4, 16, 21; 11:1~10, 25 참조)

- 스스로를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증명하고 또 주님의 택하신 자녀가 된 이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다.(로마서 9:6~8, 15, 24~26, 30; 10:5~13, 17~20; 11:1~5, 17~28 참조; 또한 니파이후서 30:2 참조)

-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권속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복음과 그에 따른 축복을 이방인과 이방인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들 또한 복음의 축복을 잃게 될 것이다.(로마서 10:12~13, 20; 11:11~13, 17~22 참조; 또한 야곱서 5:3, 7, 9, 17 참조)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로마서 11:11~22. 이스라엘 권속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서는 복음과 그에 따른 축복을 이방인에게 주셨다. (40~45분)

주: 이 가르침을 위한 제언은 로마서 9~10장에 대한 제언의 계속이다. 여러분은 **어제 자료의 세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제 자료의 세 가지 요점을 복습하고 **세 번째 요점**을 읽는다.

요점 3. 이방인들(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복음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받은 축복문에 대해 생각해 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축복사의 축복문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축복문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은 "한다면" 이라는 표현이다. 축복사의 축복문에서 이 말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찾아보면서 **교리와 성약 130편 20~21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개인 또는 일단의 사람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도록 예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가?
-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서 9:6)라고 한 바울의 표현이 어떻게 이 교리를 뒷받침하는가?
-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축복을 잃어버리는가?
- 사람들이 복음 축복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유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계명을 지키는 일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행할 때라야 행하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시간에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것이며 가장 중요한 일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유 시간을 무의식 중일지라도 영속적인 가치가 없거나 여러분이 지상에 온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활동이나 하찮은 것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오늘이나 내일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관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순간 동안만 원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리차드 지 스코트, Conference Report, 1997년 4월, 78~79쪽;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54쪽)

이스라엘 권속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합당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예임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을 통하여 그들의 축복을 잃어 버렸다고 가르쳤다. (**로마서 9:31~33; 10:1~3, 16~21; 11:3~10 참조**)

로마서 11장 11~13절을 읽고 또 이제 누가 복음과 그 축복을 받기 시작했는지를 찾아본다. **로마서 11장 25~31절**을 신중히 읽고 또 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가 시작되었는지를

찾아본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할 때 했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절정의 경륜의 시대에 복음이 가르쳐졌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알려졌으며, 그들이 이를 거부한 이후에야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져서 그들 가운데에 교회의 지부들이 조직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두 번째 부분이 성취되고 있다. 복음이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 되었을 때, 그것은 먼저 이방인들에게 알려졌으며 과거의 120년 간 이방인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며, 단지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로마에서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바울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로마서 11:25)고 말하였다" (조셉 필딩 스미스, 만유의 회복 [1945년], 163~164쪽)

이방인들(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권속으로 접붙여지고 또 온전한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접붙인다는 것은 한 나무의 가지를 다른 나무의 가지에 삽입하는 과정이다.

다음의 질문에 대해 생각한다.

- 접붙여진 가지가 원래의 나뭇가지처럼 그 나무의 일부가 될 것인가? (그렇다. 아니다.)
- 원래의 나뭇가지가 뿌리에서 영양분을 얻었다면, 접붙여진 나뭇가지는 어디에서 그 영양분을 얻을 것인가?
- 언제, 그리고 어떤 이유로 정원사는 접붙이기를 사용하는가?
- 접붙이기는 나무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주는가?
- 접붙여진 나뭇가지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로마서 11장 14~24절을 읽는다. 성구를 읽으면서 접붙이기 과정을 마음에 새겨 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바울은 어떤 영적인 과정을 접붙이기에 비유하였는가?
- 여러분은 접붙이기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또 이스라엘의 권속으로 입양된 이방인들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 여러분은 입양된 사람들이 받는 축복과 문자 그대로 혈통상 이스라엘의 후손이 받는 축복 사이에 어떤 차이를 볼 수 있는가?
- 이 접붙이기 과정이 어떻게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에 대해 지니고 계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접붙여진 나무의 뿌리가 되신다. (요한계시록 22:16 참조) 입양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권속으로 태어났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주님으로부터 영양분과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른다면, 주님의 가족으로 접붙여지고 또 주님께서 고르신 가장 좋은 모든 축복이 성약의 일부로서 그들에게 올 것이다.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로마서 12~16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야 우리는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니파이후서 25:23 참조)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의롭게 행하는 것이 복음 계획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30~35분)

•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구원받음이라는 말은 종종 종교 토론에서 사용된다. 로마서 10장 9~10절을 읽는다. 많은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구주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였거나 선언했기 때문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교회 회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후기 성도들이 '구원받다'나 '구원'같은 말을 사용할 때에는 최소한 여섯 가지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가운데 몇 가지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은 확증되었으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볼 때, 구원은 미래의 일이거나(고린도전서 5:5 참조) 혹은 미래의 일로 조건지어진 것으로 이야기되어야 합니다.(마가복음 13:13 참조)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의미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Conference Report, 1998년 4월, 76쪽;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59쪽)

옥스 장로가 말한 여섯 가지 의미가 아래에 나와 있다. 참조 성구와 옥스 장로가 전한 말씀의 발췌문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한다.

1. 우리 모두는 육체적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엘마서 11:43~44 참조)

"첫째,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22)"

2.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야고보서 2:14~17; 교리와 성약 14:7; 신앙개조 제3조 참조)

"죄와 죄의 결과에서 구원에 관해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예, 하지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가 될 것입니다. 신앙개조 제3조에는 우리의 신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신을 받으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내 보여야 하는 신앙, 즉 죄 지은 사람 각자의 신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2:37~38 참조)

... 우리가 필멸의 시험을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회개와 충실함과 봉사과 끝까지 견딤으로 완수할 때까지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3. 우리는 "거듭나"게 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3:3~5; 모사이사서 27:24~26 참조)

"우리가 물과 영으로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함으로써 우리 구주와 성약의 관계를 맺었을 때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그 거듭남을 매주 안식일에 성찬을 취함으로써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임을 증언합니다. ... 우리는 전혀 새로운 영적인 부자 관계와 영광스러운 상속의 소망을 갖 ... 습니다. [모사이사서 5:7; 15:9~13; 27:25 참조]"

4. 우리는 복음의 빛을 통하여 무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8:12 참조)

"구원받았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인생의 목적과 사람의 운명에 대한 무지함의 암흑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역을 통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2; 또한 요한복음 12:46 참조)"

5. 우리는 둘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40~42; 요한계시록 2:11 참조)

"후기 성도에게 '구원받았다'함은 장차 올 세상에서 영광의 왕국에 대한 확증으로 둘째 사망으로부터(궁극적인 영적 죽음을 의미함) 구원되거나 혹은 해방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40~42 참조) 부활이 만유에 미치듯이, 극소수를 제외하고 [교리와 성약 76:40~43 참조]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관점에서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6. 우리는 승영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교리와 성약 76:53~60 참조)

"후기 성도들에게 구원받다 또는 구원이라는 말은 승영 혹은 영생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서 2:11 참조) 때로 이러한 의미로는 '충만한 구원'이 언급되기도 합니다.(브루스 알 맥콩키, 필멸의 메시아, 1:242) 이 구원은 단지 회개와 합당한 신권 소유자에 의한 침례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을 포함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끝까지 견딤으로써 그 성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요구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승영'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필멸의 상태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조급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그 영광스런 지위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위대한 심판자이신 그분의 마지막 심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Conference Report, 1998년 4월, 76~78쪽;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59~60쪽)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구원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계명,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의식,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 보여야 할 모범이 있다.

다음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한다.

• 구원받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

• 모든 사람이 바울의 권고대로 산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뀌겠는가?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소개

바울은 로마서 9~11장에서 예임, 택함, 입양의 교리들에 대해 설명한 후, 성약에 따르는 충만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참되고 충실하게 되도록 성도들을 격려함으로써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자신의 서한을 끝맺었다.

이스라엘 권속의 일원이 되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를 알게 된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백성에게보다도 큰 책임인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멍에를 지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을 기꺼이 하는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봉사한다면 그가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보내신 사도나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브루스 알 맥콩키 Conference Report, 1974년 4월, 103~104쪽; 성도의 빛, 1974년 11월호, 33쪽)

바울은 이스라엘 권속에게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고 가르쳤다. 여기에는 성도로서 생활하는 것, 지도자의 권고에 따르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불화를 피하는 것, 의를 받아들이는 것, 다른 사람과 우정을 나누는 것, 악을 피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이 포함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12~16장을 공부하고, 공과를 준비하기 전에 다음 원리들에 대해 고려해 본다.

찾아보아야 할 중요한 복음 원리

-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이다. 그것은 우리가 의로운 일을 수행하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권능이다.(로마서 12:6; 15:15 참조; 또한 사도행전 15:11; 니파이후서 25:23 참조)
- 지상에서 성역을 행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분의 속죄에 앞서 동물의 희생제물을 바칠 것을 명하셨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과 봉사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을 헌신함으로써 “산 제물”로 우리 스스로를 바치라고 명하셨다.(로마서 12:1~3, 9~18 참조; 또한 제3니파이 9:19~20; 모로나이서 10:32 참조)
- 교회의 각 회원은 각기 다른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 몸의 부분으로,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를 이룬다. 우리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재능을 바쳐야 한다.(로마서 12:3~8, 13~18 참조)
- 우리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로마서 13:8~10 참조; 또한 마태복음 22:36~40; 니파이후서 31:20 참조)
-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가 의롭게 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 특별히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또 그들과 우정을 나누어야 한다.(로마서 14:1~21; 15:1~7 참조)
- 우리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며 또 교회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로마서 16:17~18 참조)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로마서 12:1~18. 지상에서 성역을 행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분의 속죄를 앞서 바라보는 방법으로 동물의 희생제물을 바칠 것을 명하셨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과 봉사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을 헌신함으로써 "산 제물"로 우리 스스로를 바칠 것을 명하셨다. (30~35분)

둘 몇 개와 성냥이 앞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우리가 구약전서에 나오는 희생을 드리려 한다면 이 물건들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 어떤 중요한 것이 빠졌는가?

출애굽기 12장 5절을 읽고 또 동물 희생의 특징 몇 가지를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동물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엠 러셀 벨라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희생의 율법에 관하여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주요하고도 영원한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담,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신약전서에 나오는 사도들에게 적용되었으며, 또 우리가 희생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두 가지 주요 목적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증명해 보이는 것과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일에서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희생의 율법 [신약전서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종교 교육가들에게 행한 연설, 브리검 영 대학교, 1996년 8월 13일], 1쪽)

벨라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돕는 희생의 율법이 갖는 기본적인 목적이 계속되기는 하였으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희생에 따라서 두 가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 의식이 희생 의식을 대신한 것이며, 두 번째는 이 변화가 희생의 초점을 그 사람이 바친 동물에서 사람 자신에게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희생은 드리는 것에서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희생의 율법, 5쪽; 또한 제3니파이 9:19~20; 교리와 성약 59:8, 12 참조)

로마서 12장 1~2절을 읽고 이 구절이 벨라드 장로의 말씀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생각해 본다.

• "너희 몸을 ... 거룩한 산 제물(희생)로 드리라"(1절)는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 그러한 희생이 어떻게 시험이 되는가?

• 그 희생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데 도움이 되는가?

로마서 12장 9~2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희생을 묘사하는 많은 표현이 들어있다. (9절에 있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와 "악을 미워하고"라는 표현이 그 예이다.)

벨라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고 생각한다.

"우리가 스스로의 이기적인 바람을 희생하고, 우리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더욱 더 [주님과] 같이 됩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희생을 바치라는 계명을 받고 있으나 동물의 피를 흘려서 바치라는 계명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좀 더 신성하고 거룩하게 할 때 가장 높은 차원의 희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희생의 율법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 우리가 이런 계명과 또 다른 여러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 우리는 좀 더 신성하고 거룩하게 되어 우리 주님처럼 됩니다." (엠 러셀 벨라드, 이브로부터 배우는 교훈,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96쪽)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동물이나 곡식을 요구하시는 대신, 이제는 우리에게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희생의 율법을 더 높은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영혼에 이르게 됩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진정한 개인적인 희생은 결코 짐승을 제단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내재한 동물적인 본성을 제단 위에 놓고 그것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Conference Report, 1995년 4월, 91쪽;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67쪽)

"희생은 순수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정도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바치는 희생에 의해 측정될 수 있습니다." (엠 러셀 벨라드, 희생의 율법, 3, 5~6쪽)

벨라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주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육으로 난 우리와 그것과 관계된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내맡길 때,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며, 또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며, 의롭다하심을 얻을 것이며, 정결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모습을 우리 몸 안에 가지고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사이야서 5:2; 엘마서 5:14; 모세서 6:59~60 참조)"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그분께서는 희생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생애와 성역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사명은 그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주시는 사랑의 행위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희생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또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

"희생의 원리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너무도 쉬운 일이 된다면, 간증의 깊이가 얕을 것이며, 그 간증의 뿌리는 우리 개척자 조상들의 간증과는 다르게, 땅속으로 내려가 자리잡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희생의 율법을 이해하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또 그것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도 중요한 일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희생의 율법, 9~10쪽)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로마서 12:3~8; 16:17~18. 교회의 각 회원은 각기 다른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 몸의 부분처럼 함께 연합할 때 하나의 완전한 몸을 이룬다. 우리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재능을 각각 바쳐야만 한다. (30~35분)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부분이 필요하다

- 퍼즐 맞추기 게임의 퍼즐 몇 개가 없어진다면 퍼즐 맞추기가 완전하게 맞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 좋아하는 운동 팀을 생각한다. 각 선수가 그 팀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한다.
- 여러분이 집에서 준비했던 음식을 생각한다. 그 음식의 조리법과 각 재료가 서로 어떻게 어우러져 맛을 내며 또 모든 재료가 다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 각자는 비록 다른 재능과 책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교회 회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울 또한 비유를 사용하였다. 바울이 사용한 비유를 찾아보면서 로마서 12장 3~5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인간의 몸이 왜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훌륭한 비유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 여러분의 눈, 심장, 귀, 손 또는 뇌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 여러분 몸의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의지하는가?

이 비유가 교회의 회원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각 회원은 각기 다른 힘, 은사, 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가 되라는 명을 받았다. (교리와 성약 38:27 참조) 교회의 회원들이 지니고 있다고 바울이 말한 은사를 찾아보면서 로마서 12장 6~8절을 읽는다. (더 많은 은사를 고린도전서 12:4~12; 모로나이사서 10:8~23; 그리고 교리와 성약 46:11~29에서 찾을 수 있다.)

- 바울이 언급한 은사들이 어떻게 교회의 다른 회원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가?
- **교리와 성약 46편 12절**을 읽는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다른 학생들에게서 느낀 힘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그 은사들을 사용한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로마서 13~15장.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가 의롭게 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 특별히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또 그들과 우정을 나누어야 한다. (30~35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했던 경험을 기억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봉사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 여러분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 봉사한 경험의 결과로서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간증과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서로 사랑하고 또 봉사하는 것에는 큰 힘이 있으며 또 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43~47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구주께서는 누구를 사랑하고 또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는가?

로마서 13~15장에는 우리가 구주의 이 가르침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에 관한 몇 가지 뛰어난 권고가 들어있다. **다음 성구 가운데 하나를 읽는다. 로마서 13:8~14; 14:10~23; 15:1~7; 또는 15:13~18.**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에 관해 그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찾아보면서 성구를 속으로 읽는다. 필요하다면 다음 질문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찾은 것에 대해 생각한다.

- 여러분이 읽은 구절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는가?
-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봉사하는 것에 대해 이 구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 만일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권고를 따른다면, 교회나 학교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 만일 여러분이 이 권고를 따른다면, 교회나 학교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